

행주산성 장어요리

가을 정취 물씬 느껴지는 산책로가 일품인 행주산성은 장어구이, 갈비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임진왜란의 유적, 토성, 역사관 등 볼거리가 다양해 가족단위 주말 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시원스럽게 뚫린 자유로나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에서 불과 30분 내에 다다를 수 있다.

글 · 사진 : 전기환

한강과 맞닿아 있는 왕복 10차선의 자유로. 서울 도심에서 문산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모처럼 만나는 넓은 길이 시원스러워 운전자라면 모두 한껏 악셀을 밟아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2002년 여름 전 세계인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월드컵 공원을 지나면 우측으로 높이 솟아있는 분수를 만날 수 있다.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햇별이 좋은 날에는 무지개가 피어나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월드컵 공원에서 불과 10여 분, 행주대교와 만나는 지점 좌측으로 나지막한 산이 보이고 그 정상에 탑이 우뚝 솟아 있다. 바로 행주산성의 역사를 잘 설명하는 대첩비가 바로 그것이다.

행주산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역사를 잘 설명하는 유적지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끄는 의병과 승병을

포함해 2천3백 명의 병사가 왜군 3만여 명을 물리친 행주대첩의 현장이다.

주차장에 행주산성 대첩비가 있는 덕양산 정상까지는 걸어서 30~40분을 올라야 하는 코스다. 짧은 구간의 산책이지만 제법 경사가 높아 오를 때 약간의 땀을 흘려야 할 정도. 하지만 그리 험난한 코스가 아니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국가사적(제56호)으로 지정된 이후 주요 산책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운치가 덜 하지만 토성방향으로 오르면 밤나무, 단풍나무 등 숲이 우거져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산책로 주변으로 떨어진 밤을 줍기도 하고 막물들기 시작한 단풍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

정상에 오르면 한강은 물론이고 곧게 뻗어 있는 자유로, 행주대교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맑은 날이면 일산 신도시, 김포 등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어 전망이 좋다.

이처럼 행주산성은 자유로가 개통된 이후부터 더욱 활성화 된 시민공원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도심 속의 쉼터로, 학생들의 역사 학습장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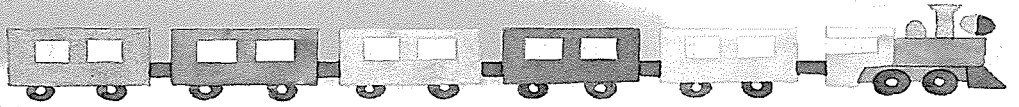
권율 장군의 활약상

행주산성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활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권율 장군은 1592년 7월 8일 싸움에서 왜군을 크게 격멸하여 대첩을 이루고 12월에 수원 독왕산성에서 또 왜적을 무찌른 후 한성(지금의 서울)을 수복하고자 작전을 개시하였다.

조방장 조경과 승장 처영 등 정병 2천여 명을 거느린 권율 장군은 한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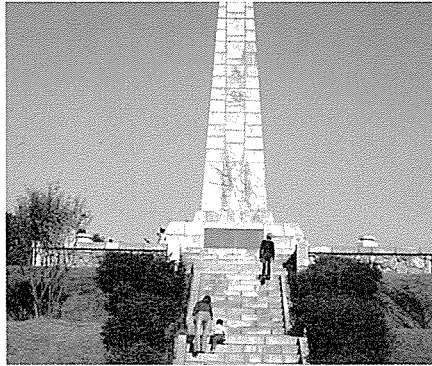




▼ 권율 장군상



▼ 행주산성



▼ 덕영정



건너 행주 덕양산에 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권율 장군은 아현 고개를 정하러 하다 조경이 행주 덕양산을 물색하여 권율에게 아뢰어 성지로 결정하니 이 곳이 바로 행주산성이다.

권율은 해발 124m의 덕양산 중턱에 이중의 튼튼한 목책성을 쌓고 필사향전의 태세로 왜군 3만 명에 이르는 7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것이 바로 충무공의 한산 대첩과 아울러 길이 빛나는 행주대첩이다.

또 이 싸움에서 고양의 부녀자까지도 치마폭에 돌을 날라 도움을 주었는데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산 중턱에 목책자리가 남아 있고 삼국시대 토기(土器)조각이 출토되어 옛날에도 이곳이 군사기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덕양산 정상에 마련된 영상자료실에서 기록영화를 통해 잘 살펴 볼 수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약 10여 분 소요된다.

이밖에 행주산성 내에는 권율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은 충장사를 비롯해 동상, 1602년 건립한 행주대첩비가 바각 속에 남아 있으며, 1963년에 세운 대첩비도 서 있다. 이 비의 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한다.

먹거리 명소로 유명해

행주산성 초입의 장어구이촌의 역사는 무려 30여 년에 이른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목 좋은 곳이면 식당이 들어서 불야성을 이루기도 한다.

음식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것이 장어 요리, 그리고 고깃집, 최근에는 카페도 많이 들어섰다.

그중 행주산성 입구에 자리한 강마루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그대로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당에 넓은 평상과 시원한 분수대를 설치해 숲과 어우러진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메뉴는 장어구이를 비롯해 갈비, 토종닭 요리를 주로 한다. 가격은 장어구이 2인분 40,000원(1kg)이다. ☎031-971-5152

여행정보

➤ 찾아가는 길

자유로에서 행주산성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하거나 올림픽 대로에서 행주대교를 건너 행주산성으로 접어들면 된다. 행주산성 초입의 장어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먹거리촌을 지나 곧장 달리면 행주산성 주차장에 이르게 된다. 입장료 1,000원, 주차료 2,000원, 연중무휴. 일몰이후 시간에는 폐장한다. ☎031-961-2580

➤ 문화유산 해설사 안내

관광객들에게 행주산성의 문화유적을 동행하며 설명해 주는 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10명 내외의 단체인 경우, 행주산성 매표소 좌측 안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등역 서비스도 실시중이다. 단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